해외 ICT 표준화 동향

2015. 10

3rd Week

목 차

■ 본문

1. ETSI, 전자거래 기술규정 관련 유럽표준(EN) 개발
2. 중국/EU, 5G 글로벌 표준화 개발 협약체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게시물 보기 : TTA 홈페이지 ▷ 자료마당 ▷ TTA간행물 ▷ 표준화 이슈 및 해외 동향

1. ETSI, 전자거래 기술규정 관련 유럽표준(EN) 개발

(ETSI enables chain of trust for digital signatures)

보도날짜 2015.10.01

출 처 ETSI

사 이 트 http://www.etsi.org/news-events/news/1010-2015-10-press-etsi-enables-chain-of-trust-for-digital-signatures

■ ETSI[1]는 시장 내 전자거래에 필요한 전자식별 및 신뢰서비스(eIDAS, Electronic identification and trust services) 기술규정(Regulation (EU) 910/2014)을 위한 유럽 표준 시리즈의 첫 번째 표준(EN 319 403)을 발표했음

- 오늘날 디지털 세계는 많은 기관들이 문서 인증을 위해 전자서명, 전자스탬프, 전자인증서를 사용하며 이는 문서 인증을 더욱 쉽고,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만듦

- ETSI의 전자서명 및 인프라(ESI, Electronic Signatures and Infrastructures) 기술위원회가 개발한 이번 첫 표준은 신뢰서비스 제공 업계의 적합성 평가에 활용됨

■ ETSI TC ESI는 관련 사업 관계자들이 전자서명 적용 제품 및 서비스를 손쉽게 사용하고, 이와 관련한 국가 간 상호운용성 및 상호 인정 등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규격(TR 119 000*)을 발표한 바 있음

* 전자서명 표준의 일반적인 구조와 기존 표준 및 후보 표준에 관한 개요가 서술됨

- ETSI는 ESI 기술위원회와 ETSI가 표준화한 양식 내에서의 전자서명 교차 유효성 검사(cross-validate)를 위한 상호운용성 부분*을 통해 전자서명의 배포가 가능함

* CAdES, XAdES, PAdES(암호화 메시지 구문, 확장 마크업 언어, PDF 기반), ASIC(Associated Signature Containers, 관련 서명 컨테이너) 등으로 명명됨

■ 이번 EN 319 403은 신뢰서비스 제공업계의 적합성 평가 요구사항을 정의한 첫 표준으로써, 전자서명 구조의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함

1) ETSI: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 통신과 방송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첨단교통과 의료전자 등 정보통신기술(ICT)분야의 ES(ETSI Standard)표준 제정을 촉진하고 총괄 조정하는 유럽의 독립된 비영리 기관. 본부는 프랑스의 소피아 안티폴리스에 있으며, 유럽연합(EU) 회원국의 주관청을 비롯하여 유럽자유무역지역(EFTA) 회원국의 전기 통신 사업자, 제조업자 및 연구 기관 등 55개국의 688개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www.etsi.org.) [출처: TTA용어사전]

- 이 표준은 회계 감사 기관을 통한 감사의 공정함 및 운영 능력과 신뢰서비스 및 신뢰서비스 제공업계(TSPs, trust service provides)의 적합성 평가 능력에 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eIDAS 기술규정의 회계감사 요구사항(audit requirements)을 지원함

- 2016년 7월 1일부터 적합성 평가 기관의 회계감사를 통해 신뢰서비스 제공자의 인증이 이루어질 예정임

■ 현재 이 표준 관련 19개 항목이 ETSI 승인 절차를 밟고 있음

- `이 19개 항목에는 신뢰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일반적 정책 요구사항, 신뢰서비스 제공자의 증서 발행, 신뢰서비스 제공자의 발행문서 접수날짜(time-stamp) 시스템 개요, 관련 인증서, 전자서명 양식 관련 정책 및 보안 요구사항을 담고 있음

2. 중국/EU, 5G 글로벌 표준화 개발 협약체결

보도날짜 2015.10.05

출 처 cableabc

사 이 트 http://news.cableabc.com/domestic/20151005030557.html

■ 2015년 10월 5일, 중국과 유럽연합(EU)은 두 국가 간 미래 통신 네트워크 기술인 5G 개발 관련 협약을 체결함

- 양 국은 5G기술의 연구 예산, 시장진입 강화 및 국가 간 5G 협회회원 자격 획득 등의 상호 지원 및 개방 협력을 강화키로 함

■ 주요 5대 협약 내용

① 2015년 말까지 5G 기술의 개념, 기본적 기능 및 국제적 합의를 통한 개발 협력
② 공동 연구 진행 시, 5G 기술 영역의 합작 및 구현 가능성 검토
③ 5G 기술의 표준화작업 공동 추진과 3GPP 및 국제 통신 연합 등 관련 조직의 표준화 작업을 협력 지원
④ 무선 대역 식별 촉진과 관련된 적절한 표준 개발 및 5G 기술의 최신 스펙트럼 요구사항 개발 협력
⑤ 5G 기술 관련 서비스 및 응용 관련 공동 연구 및 사물인터넷 영역의 공동 연구 가능성 검토

■ 세계적 이슈인 5G 영역 기술개발과 관련한 이번 협약은 상당히 기념비 적임

- 2020년의 통신 인터넷 유동량은 2010년의 30배 수준에 이를 것으로, 미래 5G 이동통신 기술은 주변 어디서나 존재할 것으로 예측됨. 5G 기술은 통신 속도 향상에서 더 나아가 디지털 시대 미래 인류의 핵심 기술 및 사물인터넷의 기초가 될 것임

- 이번 협약 체결 행사에서 EU는 "유럽 통신회사에게 중국이 5G 주요 시장이라 생각하고, 이번 중국과의 협약은 장래 가장 중요한 아시아 합작 파트너와의 협력을 의미하며, 2020년까지 5G 기술 상용화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언급함

기타 소식

유럽위원회, ICT 표준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 작업 착수

▶ 출처 : https://joinup.ec.europa.eu/community/osor/news/ec-survey-ict-standards-digital-single-market (2015.09.30.)

ㅇ 2015년 12월 16일까지 유럽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1]는 디지털 단일시장[2] 표준화 관련 공공 컨설턴트(public consultation)작업을 진행중임

- 이번 5월 6일 발표된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 중 하나로, ICT 우선순위 표준 계획(ICT Priority Standards Plan)*을 위한 작업임

* Rolling plan: EC는 2011년 ICT 표준화와 관련하여 유럽의 표준 관계자 플랫폼(European Multi Stakeholders Platform)을 형성함. 이는 관계자들이 EC와 EC의 ICT 표준화 정책을 지지하게 하고자 한 것으로, 전문가 그룹은 EC를 도와 ICT표준화와 관련된 롤링플랜을 매년 업데이트하고 있음. 이는 표준화와 표준, 그리고 ICT 기술사양 등의 정책 우선순위를 식별하도록 도움

: 5G 통신, 클라우드 컴퓨팅, 사이버보안, 데이터 구동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 유럽 산업의 디지털화, e-헬스,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사물인터넷(IoT), 스마트 시티 및 효과적인 에너지 사용과 관련된 내용 협의함
(https://ec.europa.eu/digital-agenda/en/news/rolling-plan-ict-standardisation-0)

1) EC (European Commission) : 유럽 연합(EU)의 회원국 정부의 상호동의에 의해 5년 임기로 임명되는 위원들로 구성된 독립 기구이며, 유럽 연합의 보편적 이익을 대변하는 초국가적 기구이다. 공동체의 집행기관으로서 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위원회는 공동체의 법령을 발의함. 권고와 계획안 작성을 통해 위원회는 이니셔티브권과 제안권을 행사함 (http://ec.europa.eu/) [출처: 위키백과]

2) 디지털 단일시장(Digital Single Market) : 글로벌 단일시장 전략은 2015년 5월 EU가 발표한 전략으로, 글로벌 경제의 급속한 디지털화됨에 따라 EU 차원에서의 디지털 관리규범 조화와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역내 디지털 경제활동의 제약요인을 제거하고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고자 함. EU가 제시하는 디지털 단일시장이 구현될 경우, EU 회원국 간 온라인 상거래가 활성화되고, 회원국 간의 제도와 서비스표준이 통일되며 EU 역외 국가와 회원국 간의 온라인 상거래 장벽 역시 완화될 것으로 보임 [출처: KIEP 오늘의 세계경제]